

새 출발 다짐 속 호랑이 “한달간 휴식”

KIA 41일간 가을 캠프 마무리
신인 안치홍·손정훈 일단 합격

‘아쉬움의 마침점이자 새 출발을 위한 시작점’

KIA 타이거즈가 41일 간의 가을 마무리 캠프를 끝으로 2008시즌의 대장정을 모두 마쳤다.

지난 10월20일 남해 스포츠 파크에 마무리 캠프를 차렸던 KIA는 지난달 29일 모든 일정을 끝마쳤다. 조범현 감독을 중심으로 한 코칭 스태프 7명과 서재응·한기주·이응규 등 주전 선수들 일부와 정성철을 비롯한 2009 신인 선수들이 참가한 이번 캠프에서 KIA는 ‘3일 훈련·1일 휴식’일정으로 기초체력훈련과 기술훈련을 병행했다.

어제 통증으로 재활군에 머물고 있는 이범석·최희섭, 좌측 허벅지 근육이 파열된 김선빈 등 재활군은 광주구장에서 개인훈련으로 마무리 캠프를 대신했다.

조범현 감독이 이번 캠프에서 주안점을 뒀던 것은 ‘체력’이었다. 조 감독은 “올 시즌을 보내면서 베스트 멤버로 팀 전력을 꾸리지 못했던 것이 가장 아쉬웠다”며 “체력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고

이번 캠프는 체력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선수들 스스로도 체력적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캠프가 운영됐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조 감독의 평가처럼 올 시즌 올림픽 참가 이후 체력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노출하며 하반기 부진했던 이응규와 부상으로 고전했던 서재응·김상훈 등 주전급 선수들은 자발적으로 훈련에 참가해 체력 강화와 함께 신인급 선수를 이끄는 역할을 맡았다.

캠프를 통해 2009 신인들의 기량 점검에 나선던 조 감독은 내야수 안치홍(18·서울고)과 손정훈(22·경희대)에 대해서는 일단 합격점을 내렸다. 2차 1지명을 받은 안치홍은 공·수에서 모두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2차 3순위인 손정훈은 전천후 내야수로 눈길을 끌었다.

조 감독은 “올 시즌에도 경쟁을 강조했던 것처럼 새로 가세하는 신인 선수들과 김종국·김선빈 등 기존 선수들의 내야 경쟁을 통해 팀의 발전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끝난 KIA 가을 마무리 캠프. 남해 스포츠 파크에서 투수 서재응(사진 가운데)과 한기주(오른쪽)가 수비훈련을 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했다.

내야수 출신의 신인들이 캠프에서 조 감독의 눈길을 끌기는 했지만 KIA 아킥레스 건인 유격수에 대해서는 장교(長考)가 예상된다. 트레이드 카드도 고려중이다. 이럴 경우 손시현의 복귀로 이대수와의 뜨거운 유격수 경쟁 구도가 형성된 두산이 최우선 협상자가 될 전망이다.

대어급 FA선수들의 행보와 원정삼트레이드 파문 등으로 11월 한 달 프로야구

계가 시끄러웠지만 KIA는 새로운 선수 영입없이 내부에서 먼저 답을 찾겠다는 방침 아래 조용히 캠프를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내년 시즌을 향해 미리 전개된 포지션 경쟁은 남해를 뜨겁게 달구었다.

아쉬웠던 한 해를 정리하고, 스프링 캠프와 내년 시즌을 위해 분위기 쇄신에 주력했던 KIA 선수단은 개인 훈련으로 12월을 보내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히어로즈, 우리담배 상대 후원금 지급 소송

우리담배(주)로부터 후원금이 끊긴 히어로즈 프로야구단이 우리담배를 상대로 후원금을 지급하라고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히어로즈는 우리담배를 상대로 후원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과 후원금 24억7천여만 원을 임시로 지급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을 제기했다. 히어로즈는 소장과 가처분신청서에서 “우리담배가 올해 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매년 70억 원씩 후원금을 내는 대신 구단 로고와 선수 초상권, 구단 관련 광고물 게시권, 기업광고 권한 등을 보장해주기로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난 8월부터 후원금이 지연돼 현재까지 24억7천여만 원이 미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최경주 첫날 최다 상금

7만5천달러 획득
LG 스킨스 게임

‘뱅크’ 최경주(38·나이키골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내로라하는 선수들이 출전한 스킨스게임 첫날 선두에 나섰다.

최경주는 지난달 30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디언웰스의 인디언웰스 골프장 샬레브러티코스(파72·7천88야드)에서 열린 LG스킨스게임 첫날 9홀 경기에서 상금 7만5천달러를 얻었다.

필 미켈슨과 로코 미디어이트(이상 미국), 스티브 에임스(캐나다)가 최경주와 함께 출전한 이번 대회는 PGA투어 정규 대회는 아니지만 스타급 선수들이 출전해온 이벤트 행사다. 올해 26회째로 2006년부터 LG가 타이틀스폰서를 맡고 있으며 홀마다 상금을 걸어놓고 가장 낮은 타수로 홀을 마친 선수

가 상금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날 9홀, 이틀째 남은 9홀을 치르며 홀당 상금은 후반으로 갈수록 많아진다.

총상금은 100만달러. 1,2번 홀에서 승자가 나오지 않아 상금이 쌓인 3번 홀에서 최경주는 약 1m 버디 퍼트를 넣으며 7만5천달러를 얻었다.

4번 홀에서 미켈슨이 이글을 잡아내며 2만5천달러를 가져갔고 미디어이트와 에임스는 첫날 상금 확보에 실패했다.

5번 홀부터 9번 홀까지 승자가 나오지 않아 이틀째 경기의 첫 번째 홀인 10번 홀에는 25만달러의 상금이 쌓여 있으며 아직 총상금 100만달러 가운데 90만달러가 남아있어 우승 향방은 점치기 이르다.

1번부터 6번 홀까지는 2만5천달러, 7번부터 12번 홀까지는 5만달러의 상금이 걸려 있고 13번부터 17번까지는 7만달러, 마지막 18번 홀에는 20만달러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주가 지난달 30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디언 웰스의 인디언 웰스 골프 리조트에서 벌어진 PGA LG 스킨스 게임 첫날 경기 중 아이언 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로 누적’ 신지에 16위 그쳐

이지희 아쉬운 준우승
JLPGA 리코컵 챔피언십

일본여자프로골프 사상 첫 한국인 상금왕 타이틀을 눈앞에 뒀던 이지희(29·진로)가 고가 미호(일본)의 극적인 역전 우승에 땅을 쳤다.

고가는 지난달 30일 미야자키 미야자키골프장(파72·6천442야드)에서 열린 일본여자프로골프 시즌 최종전 리코컵 챔피언십 마지막 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때려 4라운드 합계 6언더파 282타로 역전승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일본 3개 투어 메이저 대회 석권을 노렸던 ‘지존’ 신지에(20·하이마트)는 세 나라를 오가는 강행군에 따른 피로를 이겨내지 못하고 16위(4오버파 292타)에 머물렀다.

선두에 3타차 공동 6위로 라운드에 나서 뒤집기 우승을 차지한 고가는 상금 2천500만엔을 받아 1천616만엔 앞서 있던 이지희를 제치고 상금왕에 올랐다. 고가가 우승하더라도 3위 이내에만 들른 상금랭킹 1위가 될 수 있었던 이지희는 2언더파 70타를 치며 선전을 펼쳤지만 10위(1언더파 287타)에 그쳐 부진을 삼켰다. /연합뉴스

일본 3인방 넘어

‘피겨 퀸’ 김연아

대회 3연패 간다

ISU 그랑프리 파이널 진출자 확정

日 아사다·나카노·안도

김연아와 ‘왕중왕’ 다름

‘김연아와 대결이 기다려진다’ 2008~200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시니어 피겨 그랑프리 파이널(10~14일·고양) 여자 싱글에서 우승메달을 다룬 6명의 주인공이 모두 확정되면서 김연아(18·군포 수리고)의 대회 3연패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연아는 이번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지난 3월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인 아사다 마오(18·일본)와 준우승을 차지한 카롤리나 코스트너(21·이탈리아)와 나카노 유카리(23), 안도 미키(21·이상 일본) 등과 함께 여자 싱글 왕중왕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게 됐다.

관심거리는 역시 ‘동갑내기 라이벌’ 아사다와 3년 연속 그랑프리 파이널 무대에서 나서는 것이다. 김연아는 지난 2006년 시니어무대 데뷔 첫해부터 지난해까지 아사다와 두 차례 그랑프리 파이널 무대에서 대결을 펼쳐 모두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이번 시즌 김연아가 두 차례 그랑프리 시리즈를 모두 190점대 점수로 석권하면서 일

찌감치 그랑프리 파이널행을 확정했지만 아사다는 지난 4차 대회에서 자신의 시니어 무대 최저점으로 2위에 그치고 나서 질처부심 끝에 자국에서 열린 6차 대회에서 191.13점으로 우승하면서 힘겹게 출전 티켓을 잡았다.

이 때문에 완벽한 기술을 앞세워 여유 있는 스케이팅을 즐기는 김연아와 두 차례 트리플 악셀(공중 3회전반)을 앞세운 공격적 스케이팅을 무기로 내세운 아사다의 자존심 대결이 불꽃을 뿜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여자싱글 세계랭킹 4, 5위에 오른 나카노와 안도 역시 각각 2005년 대회 동메달과 2004년 대회 우승 경력을 가지고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상대다.

아사다는 지난달 29일 그랑프리 6차 대회 ‘NHK 트로피’에서 우승하고 나서 김연아와 재대결을 앞둔 굵은 굵은 글을 밝혔다. 그는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연아와 이번 시즌 처음 만나는 것이라서 기다려진다”며 지난 2005년 그랑프리 파이널 우승 이후 3년 만에 정상탈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일본 3인방의 또 다른 주자인 안도는 “그랑프리 파이널에 진출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한국에서는 힘 있고 자신이 있는 연기를 100%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아사다

김연아

이형택 ATP 던롭 월드챌린지 준우승

이형택(32·삼성증권)이 남자프로테니스(ATP) 챌린지대회인 던롭 월드챌린지 단식 준우승을 차지했다.

세계 랭킹 118위 이형택은 지난달 3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단식 결승에서 소에다 고(119위·일본)에 0-2(2-6·7(7)-7)로 졌다.

준우승 상금 3천달러와 랭킹 포인트 38점을 얻은 이형택은 1일 발표되는 세계 랭킹에서 107위 안팎으로 순위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내년 1월19일부터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는 2009년 첫 메이저대회인 호주오픈 본선 직행 여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호주오픈 단식에는 128명이 나오는데 와일드카드 8명과 예선 통과자 16명을 빼면 순위로 자동 출전을 하기 위해서는 대회 6주 전 랭킹에서 104위 안에 들어야 한다.

다만 본선 자동 출전 자격을 얻고도 대회에 빠지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변수가 있다. /연합뉴스